丁酉年, 다채로운 불교 행사가 찾아간다



희망찬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어떤 희망찬 소식이 불자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지난해 뚜렷한 움직임을 드러내지 않았던 불교 혁신부터 다양한 학술행사 · 문화 축제 등이 불자들을 찾아간다. 〈편집자 주〉

조계종 승려복지 국민연금 지원(1월)

조계종이 올해 1월부터 종단 사상 처음으로 스님들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이다. 조계종은 2017년 월 1만800원, 2018년 월 1만8000원, 2019년 월 3만6000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보험은 정부차원에서 노령인구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지만 사실상 스님들의 가입률은 20% 수준이다. 승려복지회는 지속적으로 스님들의 관심을 모아 국민연금보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올해 5월경 2차 지원을 위한 신청접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조계종 신행혁신운동 본격 나서(1월)

지난해 말 새해를 신행혁신운동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힌 조계종 포교원은 1월부터 신행혁신운동의 본격적인 확산에 적극 나선다.

이미 지난해 말 신행혁신을 위한 신행점검표를 제작한 조계종 포교원은 연초부터 각 사찰에서 이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다. 1월 11일 신행혁신 연찬회를 시작으로 1월 23일 포교원장 지홍 스님의 신년기자회견 등이 이어진다.

원효 탄신 1400년 학술행사(3~6월)

올해는 원효 스님 탄신 1400년이 되는 해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동국대 불교학술원 산하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단장 김종욱)은 한 · 중 · 일 3개국을 순환하며 원효 스님의 저술과 사상을 살펴보는 대규모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먼저, 3월 23~24일 중국 인민대학서 '원효와 동아시아불교' 를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시작하며, 5월 19~20일에는 동국대 주최로 14명의 세계 학자가 참여하는 '21세기 원효학의 의미와 전망-원효 찬술 문헌의 계보학적 성찰' 이라는 주제로 대규모 세미나를 개최한다.

6월 24일 열리는 동국대 HK연구단, 가나자와문고 공동 세미나는 원효 스님을 일본에 알리기 위한 공동 전시를 기념하는 행사다.

한국불교학회(회장 성운)는 오는 5월 12일 동국대에서 '원효 당대의 동아시아 불교의 지적 맥락에서 바라본 원효의 사상' 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원효 스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진 논문을 공모해 선정된 논문을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연등회(4월 28~30일)

중요무형문화재 122호 연등회가 4월 28~30일 동국대학교와 종로 일대서 성대하게 펼쳐진다. 지난해 '청춘' 이라는 새 옷을 입은 연등회가 올해는 어떤 주제로 대중에게 다가갈지 관심을 모은다. 지난해에는 20m 높이의 4사자 삼층석탑등(燈)을 광화문에 밝히고, 탑등 사방에 비천상을 세워 화려함을 더했다. 아울러 젊은이들과 소통하고자 불교카툰을 그리는 '불교 애니메이터그룹' 과 '마음수행법' '힐링아트' '사찰음식'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됐다.

제38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6월 12~14일)

한국과 일본불교 간 문화교류를 잇는 제38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는 6월 12~14일 대회 미개최지인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서 열린다. 대회주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청소년 교류사업' 을 올해부터 새롭게 실시하는 양국이 한층 진전된 주제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란 기대가 높다.

지난해에는 일본 진언종 대본산 카와사키다이시 헤켄지서 '불교신앙의 다양성' 을 주제로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태고종 26대 총무원장 선거(7월)

거액의 채무와 종단 집행부 폭력사태로 홍역을 앓은 태고종이 새 수장 선출에 나선다. 새로 구성될 26대 집행부는 '종단 정상화' 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총무원장 선출에 대한 종도들의 고민 역시 깊다.

이에 따라 現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그동안 이어온 간접선거를 직선제로 변경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중앙종회와 각 종무기관 협의 · 공청회 등을 통해 종도들의 뜻을 모아 총무원장을 선출하고, 난국을 헤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20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9월)

동북아불교의 가교역할을 하는 제20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역시 국내서 개최된다. 정확한 일정과 장소는 논의 중이지만 9월 중 개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올해는 한국대회인데다가 8년간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을 맡아온 자승 스님의 마지막 대회인 만큼 여느 해보다 참가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일정은 3월 한국 · 중국 · 일본 불교협회 관계자들이 협의를 거쳐 정한다.

조계종 35대 총무원장 선거(10월)

향후 4년간 한국불교를 대표할 조계종 차기 행정수반을 결정짓는 선거가 10월 중 열린다. 現 총무원장 자승 스님 임기가 10월 말 종료되기 때문에 종법에 따르면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에 선거가 열려야 한다.

하지만 선거일이 종단 주요 행사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주 목요일로 명시하고 있어 정확한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로 확정될 예정이다. 차기 총무원장 후보로 다수의 스님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으나 아직까지 압축되진 않은 상황이다.

불교계 각 단체 10주년 행사 '다채'

신계사 복원 10주년, 남북관계 개선 기대

올해는 금강산 신계를 복원 10주년 되는 해다. 이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올 10월 신계사서 복원 10주년 남북불교도 합동법회를 예정하고 있다.

2007년 10월 남북불교가 힘을 합쳐 이뤄낸 신계사 공동불사는 '민족 화해와 통일' 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과 함께 남북불교교류도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했다. 또한 2015년 10월엔 신계사 낙성 8주년 기념 남북합동법회를 봉행하며 교류의 물꼬를 트는 듯 했으나,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발사와 남측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으로 남북정세가 급반전되며 또 다시 좌절됐다.

현재 신계사는 '건축물 안전진단 및 보수공사' 란 시급한 문제를 안고 있다. 2017년엔 남북정세가 회복돼 민간교류도 재개되어 남북불교가 신계사서 다시 만날 수 있길 기대해본다.

국제포교사회, 조직확충 박차

국제포교사회(회장 박홍우)는 2017년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양성과정을 확충한다. 특히 2월 18일 실시되는 자격고시 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양성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일반인들이 자격고시에 대비할 수 있는 특강을 2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10강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신임 집행부 출범에 맞춰 교육 · 법회 · 홍보 · 다문화부 등 10여개 부서를 조직할 계획이다. 또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이사회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경전읽기 모임, 영어서적 윤독회, 삼국유사 공부모임 등 다양한 소모임 활동을 통해 역량강화에도 나선다.

불교문화재硏 · 불교중앙博 '전통문화 알리기'

불교계를 대표하는 문화재 전문기관과 박물관인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와 불교중앙박물관이 올해 나란히 10주년을 맞는다.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는 2000년 조계종 문화부 문화유산 발굴조사단의 창립이 그 시원이다. 2007년 현 재단법인 체재를 갖췄고, 연구소를 창립하게 됐다. 초대 소장은 故범하 스님이다. 이후 불교 관련 발굴과 사지조사 사업, 불교문화재 목판 조사 사업 등은 굵직한 연구 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10주년을 맞아 기념세미나 등 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현조)은 2007년에 개관한 불교 전문 박물관이다. 초대 관장은 故범하 스님이다. 개관 이후 개관특별전 '佛' 에 이어 '法(2008)', '僧(2009)' 연작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밖에도 '백제가람에 담긴 불교문화' '석굴암, 백년의 빛' '불국사 석가탑 사리장엄구' '삶, 그 후-지장보살' 등의 특별전을 개최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현재 10주년 기념 특별전을 준비 중이다.

종로노인복지관, 어르신 자립에 나서

종로구 어르신들의 자립 활동에 기여해 온 종로노인복지관이 10주년을 맞아 뜻 깊은 행사를 준비 중이다. 우선 4월에 10주년 기념세미나 '종로구 지역사회 네트워크 분석' 을 개최한다. 종로노인복지관은 기념세미나를 통해 종로구 지역사회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선배시민으로서 어르신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한다.

하반기엔 10주년 기념식과 증축개관식이 진행된다. 종로노인복지관 측은 "기념식과 더불어 제2회 종로장축제 '종로&장금이' 도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 중이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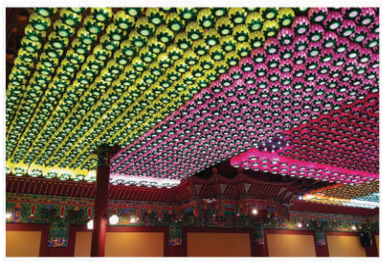


보련기획

전국 방방곡곡 자비의 등불을 밝힙니다!
연등자동승강장치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란? 법당의 구조와 규모등의 특성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를 바탕으로 장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프레임(틀)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프레임을 상하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므로 연등, 축원표등의 설치, 교체 등의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승강장치 설치 효과

- 높은 사다리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부상위험과 공포에서 해방
- 법당의 규모와 모양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로 뛰어난 장엄효과
- 프레임(틀)을 보다높게 하고,연등을 정방형으로 정렬하여 넓은 시야확보
- 최소의 인력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등,축원표 설치 교체 가능
- 철저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로 반영구적 사용


원불


위패


인등

2017 카렌다 주문 접수
카렌다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www.boryeon.com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189번길 27 A동 (모현면 일산리 549-1)
찬덕연등의 전통과 기술력을 계승한 유일한 기업입니다.